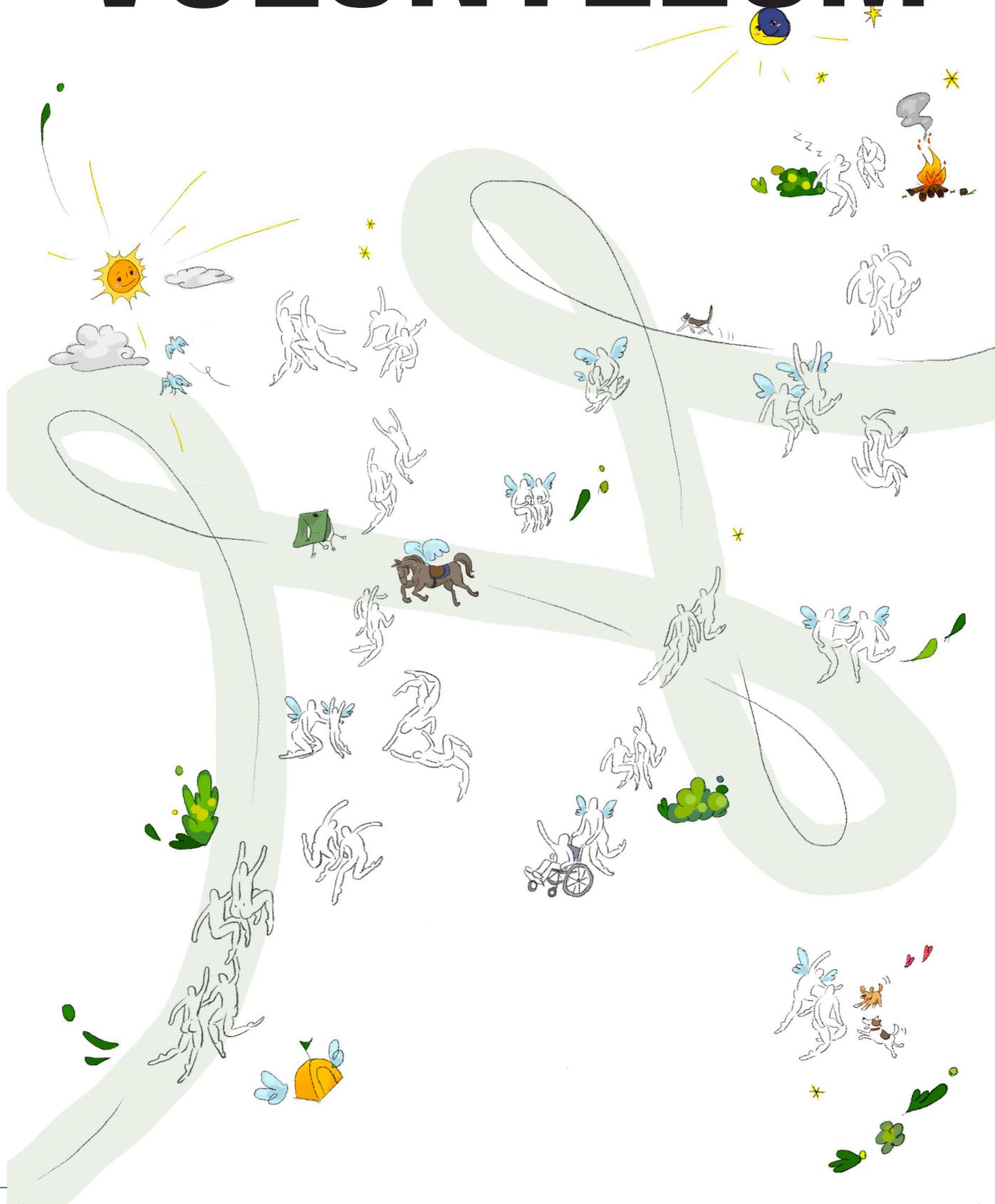


# VOLUNTEERUM





# CONTENTS



## 볼런티움

p.10

볼런티움은 당신과 함께 합니다

p.17

볼런티움의 프로그램

p.19

티움티움

p.27

볼런티움과 소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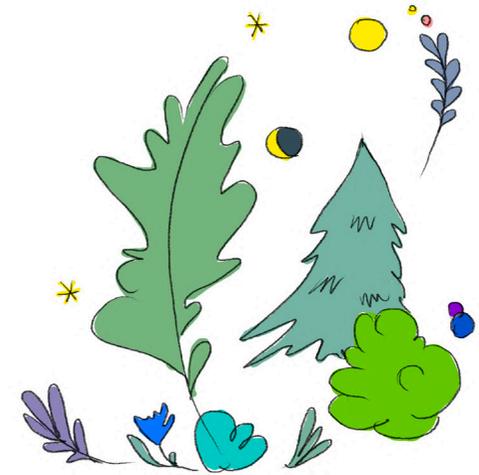
p.29

## 볼런티움 2022

p.31

## 함께 살아가는 세상

p.45



우리 모두는 자연 속에서 나눔의 아름다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볼런티움이 새로운 자원봉사를 소개합니다.

**볼런티움 Volunteum은**

사람들이 자연에 모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21세기형 자원봉사입니다.

왜 자원봉사인가,  
누구를 위한 자원봉사인가?  
자원봉사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원봉사,  
좀 더 쉽게 접근하려면?  
남에게 주고 나에게 돌아오는 자원봉사의 만족,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는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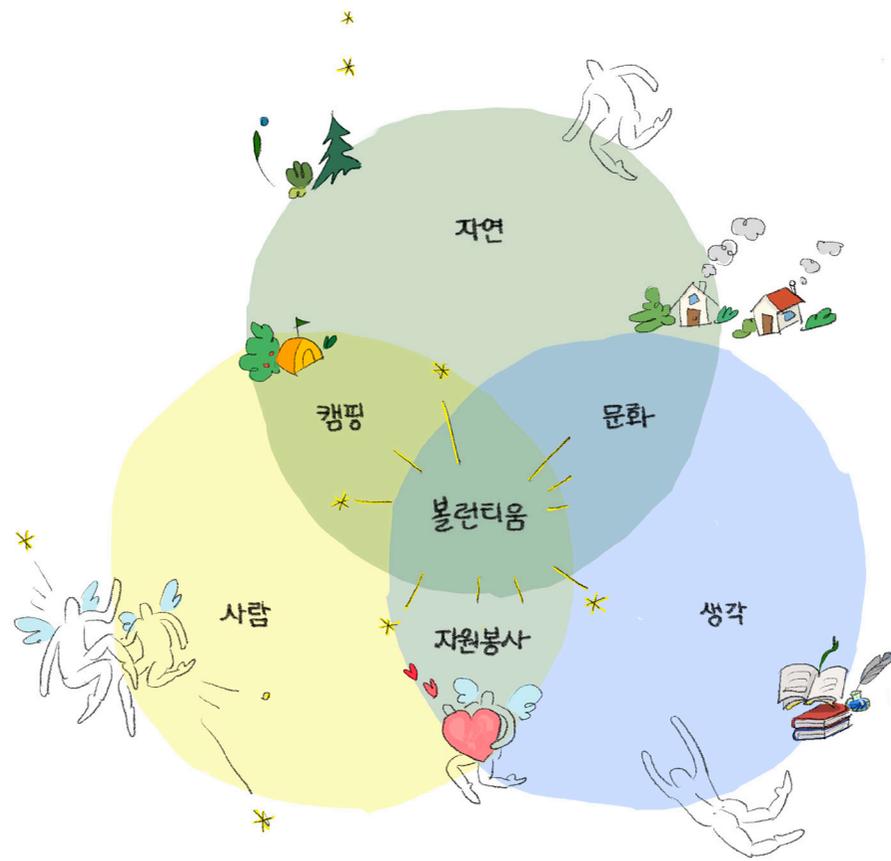
각당복지재단 오혜련  
동아알루미늄 라제건  
사회복지전문가 양용희가 모여  
근본적인 질문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자원봉사는 즐거워야 합니다.  
자원봉사가 더 즐겁도록 우리가 자연 속에 그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볼런티움에서는 자원봉사의 보람과 만족이 더 쉽고 즐겁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서로 가진 것을 더 크게 나눌 수 있도록,  
1986년 우리나라 최초로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작하여  
36년을 이어온 각당복지재단과  
1988년 설립하여 세계 텐트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온  
동아알루미늄의 뿌리를 합쳐  
볼런티움이라는 집을 지었습니다.



# 자연, 사람, 생각



캠핑과 자원봉사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 나눔으로 마음을 건강하게, 캠핑으로 자연을 푸르게

## 블런티움은

개인의 정체성 확립, 외로움 극복, 미래를 위한 준비 등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에 보다 집중하려 합니다.

가족형태의 변화, 비혼주의의 확산, 직업/학업 등의 이유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관계성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청년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 가치관 형성을 돕는 일

중장년의 은퇴 후 삶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을 돕는 일

노년층의 외롭고 불편한 삶을 돌보는 일

그리고 봉사자들이 자연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

이러한 활동을 실천하며 우리들 사이에 신뢰와 믿음이 쌓여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에서의 자원봉사, 소소한 취미가 자원봉사가 되는 것,  
재미를 바탕으로 나누고 돕는 자원봉사 문화를 꿈꿉니다.

## 자원봉사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주인의식이 바탕을 이룹니다.

나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미래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삶,

그러한 움직임이 나의 행복이 되는 사회, 선한 생각과 영향력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합니다.

## 캠핑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재충전을 위해 잠시 머무르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며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물려주는 것은 미래를 위한 나눔이자 자원봉사입니다.

캠핑을 통해 잠시 떨어져 있던 자연을 내 일상에 들여놓고

시간과 경험을 통해 타인과 공감하고 나를 되돌아 볼 수 있습니다.

캠핑을 통해 진정한 나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함께 살아가는 감각을 느끼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 블런티움에서는

자연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 우리가 꿈꾸는 미래

불러티움의 확산으로 우리는  
사람과 자연을 이해하게 됩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깊이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체득하며  
자원봉사가 주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불러티움은  
자연과 사람과 생각을 아우르는  
새로운 자원봉사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나누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원봉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불러티움을 통해 우리는  
함께 모여 꿈을 이야기하고  
자존감을 강화하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볼런티움은 당신과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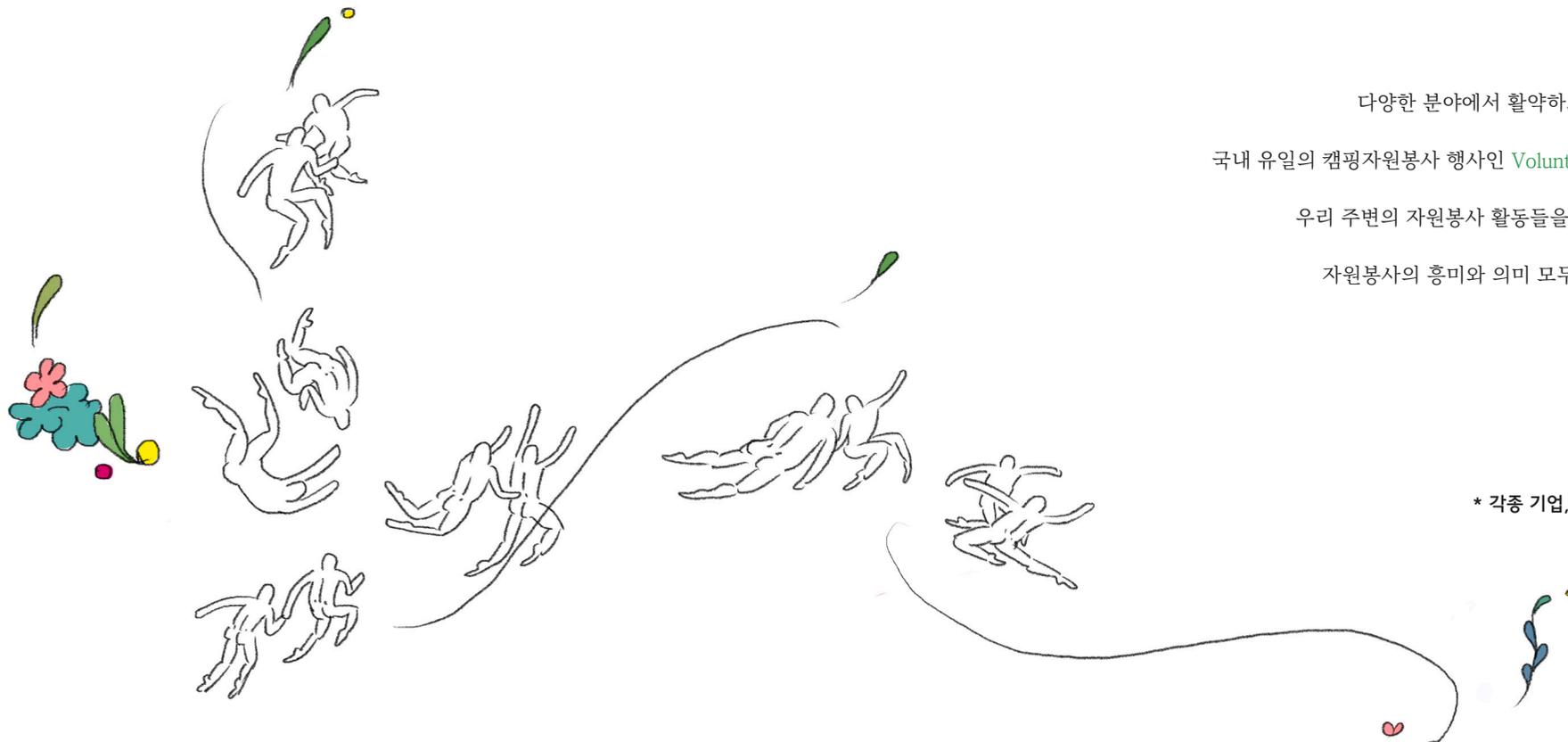
## 캠핑·자원봉사 플랫폼 디자인

볼런티움은 캠핑자원봉사 행사 기획과 운영,  
캠핑장소 대관, 캠핑장비 대여 및 판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볼런티움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곳\*을 위해  
자원봉사와 캠핑을 결합한 플랫폼을 디자인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국내 유일의 캠핑자원봉사 행사인 **Volunteeam 2022**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자원봉사 활동들을 캠핑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자원봉사의 흥미와 의미 모두를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 각종 기업, NGO, 학교, 지자체 등



## 볼런티움의 프로그램

### 문화 탐구 과정

캠핑과 함께 즐기는 소통 중심의 토론형 강의로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접할 수 있습니다.

###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캠핑

캠핑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고  
자연 속 삶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 탐구 과정

자원봉사의 자발성과 무대가성에 대한 가치에 공감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시민의식을 함양하며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 캠핑 탐구 과정

볼런티움에서는 캠핑장비 사용법 등  
캠핑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함께 배움으로써  
숙련된 캠퍼로 성장 할 수 있습니다.

볼런티움은 소수의 지원팀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조직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 팀 볼런티움을 소개합니다.



### 볼런티움 빌더

자신이 가진 재능을 볼런티움에 기부해 주시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의미합니다.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한봉협, Volunteering Korea)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원봉사 민간대표기구이자 법정단체입니다.

### 각당복지재단

보건복지부에 등록·인가된 비영리단체로 37년 이상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류에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에 자원봉사정신을 심고 말기환자를 보살피는 호스피스 운동을 전개함으로 사랑의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동아알루미늄

동아알루미늄은 텐트폴 등 고강도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각국 주요 80여 개 브랜드에 사용되는 텐트폴을 제작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원정부터 캠핑과 재난지원까지 전 세계 최고급 텐트에 사용되는 제품의 90% 이상을 동아알루미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 JKL Corporation

텐트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개념의 텐트와 트렌드를 제시하며 자연을 즐기는 많은 분들께 편리함을 주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 더 자세히 알아보기

### 각당복지재단

보건복지부에 인가된 비영리단체로서 인류애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에 자원봉사정신을 심고 자원봉사활동, 삶과 죽음의 의미 추구, 죽음준비교육 시행, 호스피스\*운동을 전개함으로 사랑의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1986년 12월 13일에 설립되었습니다.

####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1991년 법인명칭이 각당복지재단으로 변경된 이후, 재단의 산하부서로서 비행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교육과 지원, 가족자원봉사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 무지개호스피스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우리사회에 소개하여 뿌리를 내리고,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화 연구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 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삶과 죽음에 관한 강연회, 세미나 및 기타 행사를 가짐으로 여러분께 봉사하고자 합니다.

#### 애도심리상담센터

한국 사회의 바른 애도 문화 확산과 치유를 위한 연구와 실천에 최선을 다합니다.

### 동아알루미늄 DAC

DAC는 1988년 정통 제조업을 지향하며 출발했습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전 세계 텐트 개발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온 라제건 회장이 새로운 텐트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 완성한 페더라이트(Featherlite) 폴은 세계 고급 브랜드의 텐트에 사용되는 텐트 폴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소재인 TH72M\*의 개발의 성공과, 화학 연마를 사용하지 않는 그린아노다이징\*\* 공법의 세계 최초 개발은 뛰어난 성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DAC의 목표는 고강도 고성능의 알루미늄 폴을 개발하여 디자인된 제품으로 야외 활동을 더욱 활기차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DAC는 각각의 텐트 디자인에 가장 적합하도록 다양한 강도 및 성능을 가진 알루미늄 폴을 개발하였으며, 또한 차별화된 구조와 크기의 텐트를 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부품들을 개발하였습니다.

#### DAC의 모든 제품은 DAC만의

독자적 연구, 개발, 생산, 영업팀이 직접 설계, 디자인,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DAC는 텐트 폴 제조를 넘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더 가볍고 편리한, 더 좋은 텐트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TH72M : 동아알루미늄의 독자적인 알루미늄 합금으로서 동일 강성으로 30% 이상 무게를 절감할 수 있는 초경량 고강도 텐트폴에 사용됨

\*\*그린아노다이징 : 연마에 필요한 화학제품 (질산, 인산)을 제거한 새로운 친환경 공정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Volunteering Korea)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원봉사 민간대표기구이자 법정단체입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법정단체로서 전국자원봉사단체들의 총괄대표기구이자 대정부 자원봉사 민간 파트너입니다.

125개 회원단체(시민사회, 재계, 교육계, 종교계, 의료계 등)와 250여개 협력단체로 구성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상징이자 근간으로서의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회원단체들을 기반으로 한 자원봉사 상설 민간협의체의 필요성을 공감했던 시민사회·정부·기업들의 초이념적이고 초당파적인 협력 속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전통적으로 전승되고 발전되어 온 한국의 자원봉사를 계승하고 1990년대 중반 현대적 개념으로 재탄생한 자원봉사정신을 한국사회에 문화로서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시민사회의 성숙과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가는 자원봉사 법정 민간대표 기구입니다.

## JKL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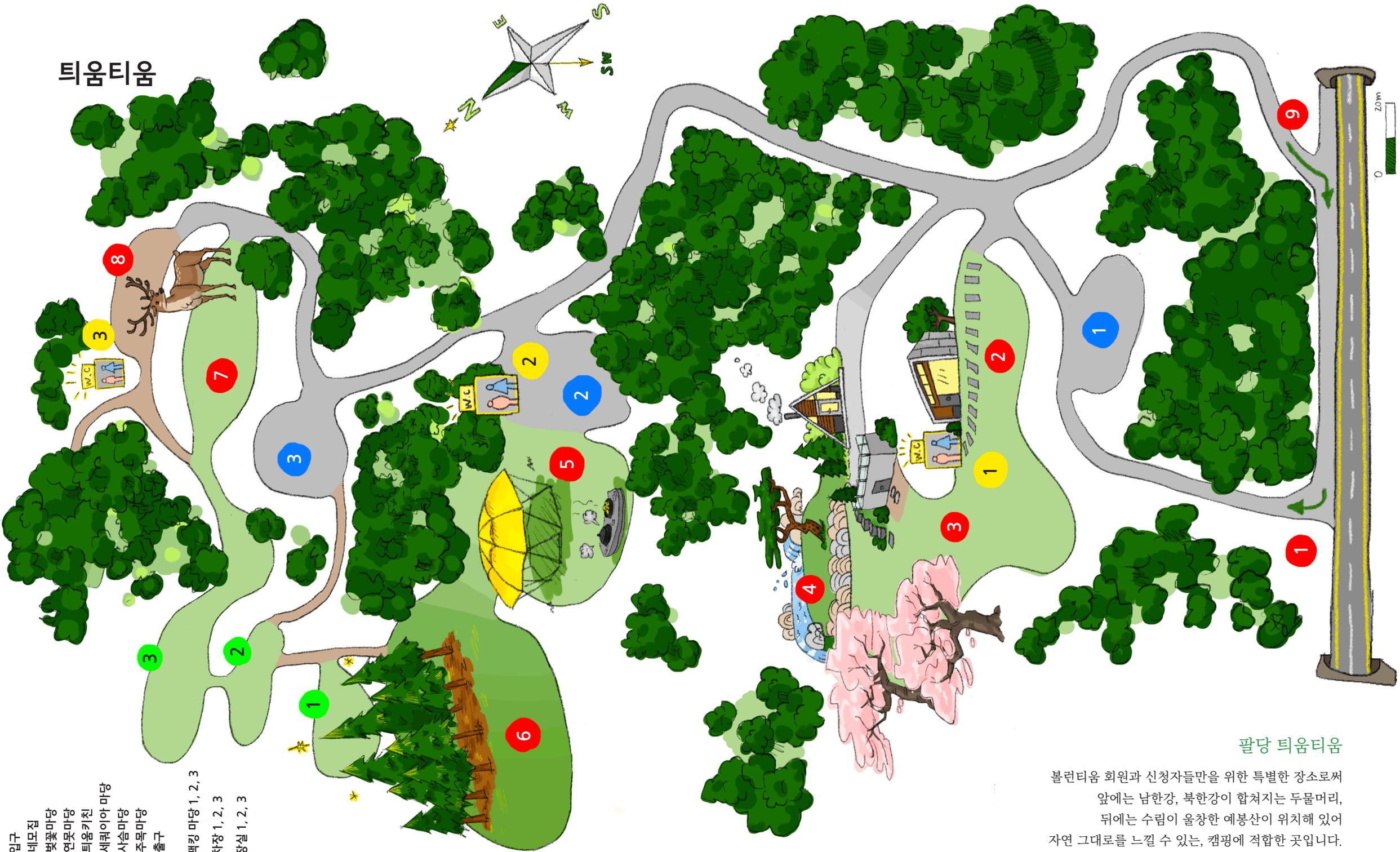
JakeLah는 DAC의 기술을 바탕으로 경량화가 필요한 아웃도어 완제품 시장을 이끌어가는 브랜드입니다.

혼자만의 공간을 원하는 1인용 텐트부터 30여명이 수용 가능한 대형 쉘터까지 다양한 타입의 텐트와 장비를 지원합니다.

30~40명이 둘러앉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지름 9미터의 대형 텐트도 두 사람이 30분이면 설치, 해체할 수 있습니다.

캠핑 중에 바닥에서 생활해야 하는 대신 의자에 앉아 테이블을 놓고 식사하고 야전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새로운 캠핑 환경을 선도하여, 캠핑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자연 속에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휴대가 간편한 초경량 체어, 테이블 등 실내와 같은 입식 생활이 가능한 텐트는 새로운 캠핑 문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 1. 입구
  - 2. 네모집
  - 3. 벚꽃마당
  - 4. 연못마당
  - 5. 티움키친
  - 6. 세쿼이아마당
  - 7. 사슴마당
  - 8. 주목마당
  - 9. 출구
- 백팩킹 마당 1, 2, 3
  - 주차장 1, 2, 3
  - 화장실 1, 2, 3

팍당 티움티움

볼런티움 회원과 신청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장소로써  
 앞에는 남한강, 북한강이 합쳐지는 두물머리,  
 뒤에는 수림이 울창한 예봉산이 위치해 있어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캠핑에 적합한 곳입니다.

## 볼런티움과 소통하기



볼런티움은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통 채널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공식홈페이지  
[www.volunteeum.com](http://www.volunteeum.com)



인스타그램  
[instagram.com/volunteeum](https://www.instagram.com/volunteeum)



이메일  
[info@volunteeum.com](mailto:info@volunteeum.com)



유선전화  
070 7166 5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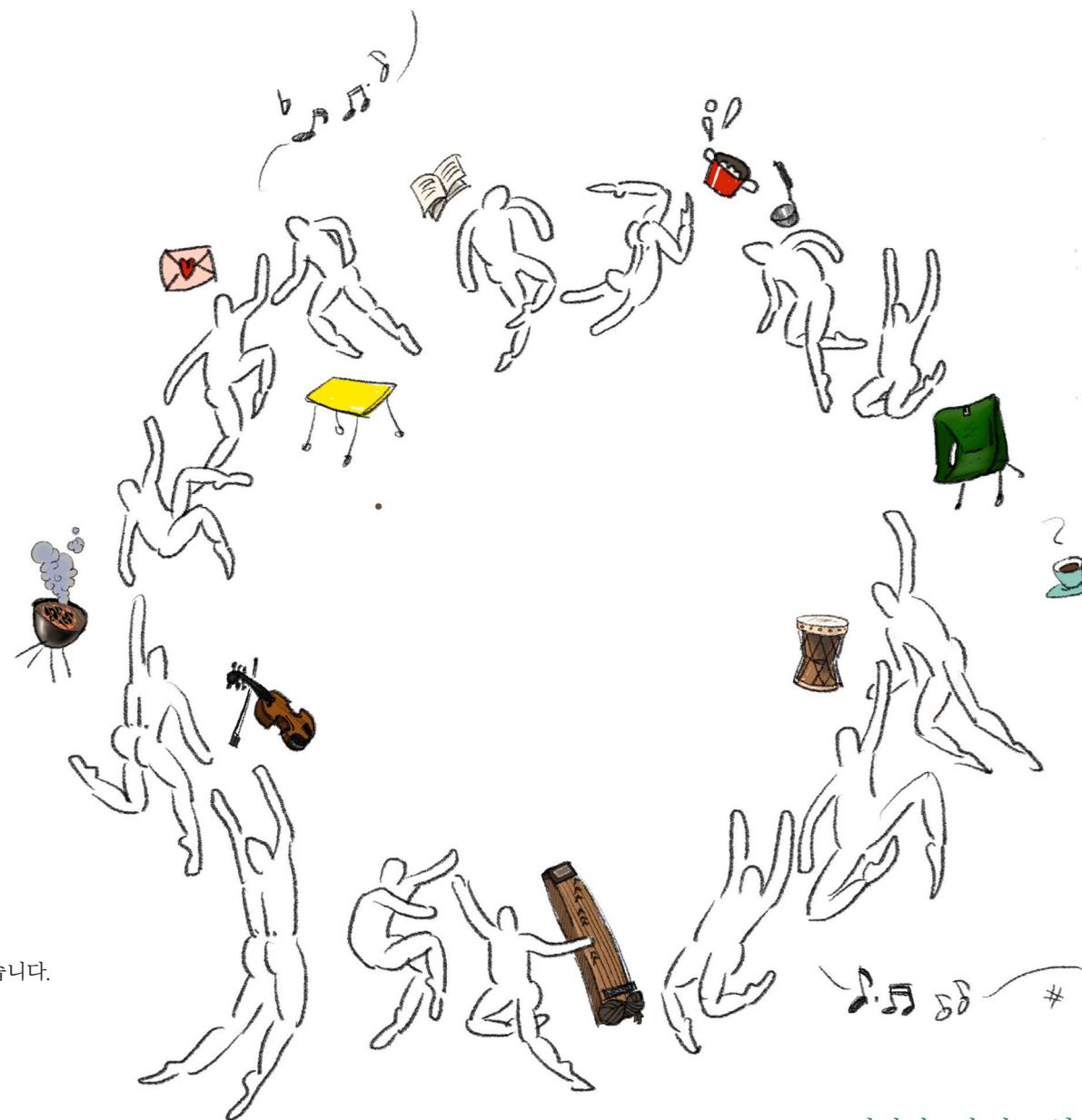
## 볼런티움 2022

2022년 10월,

첫 볼런티움을 통해 함께 하는 문화의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볼런티움 2022 대상자는

온기우편함에서 모집한 1인 가구 청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캠핑과 만남 그리고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1인 가구의 어려움에 공감하고자 했습니다.



70여명의 1인 가구 청년들과 자원봉사 캠퍼는

캠핑장에서 만나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보냈으며  
행사가 끝날 즈음엔 모두가 더 큰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 볼런티움 2022 개요

### 일시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 10월 23일 일요일

### 장소

인천광역시 노을진 캠핑장

### 주제

1인 가구 청년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캠핑

### 슬로건

‘자연에 마음을 담아’

### 주최 및 주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후원

CJ나눔재단, DAC, EXPED, Girl Scouts, Helinox, Hilleberg,  
JKL Corporation, Parker's Int., Synkey,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온기우편함

###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보노보노; 캠핑에서 즐기는 간편 요리를 만들어보는 요리교실  
송명훈 교수; 타악기를 두드리며 힐링을 찾는 힐링드림서클  
온기우편함; 편지를 통해 고민을 나누는 온기우편함 부스  
용형준, 임현주 작가;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우드카빙교실  
청년 기획팀; 나만의 잊지 못할 순간을 공유하는 인생사진전  
트릭커; 직접 준비한 드립 커피를 나누어주는 캠핑카페

### 외빈 참석자

페트라 힐레베르그; 힐레베르그 회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

## 볼런티움 2022 일정

### 1일차

10월 21일

행사 사전 준비 및 세팅  
무대 및 조명 설치  
웰컴 기프트 준비  
캠퍼 얼리 체크인

### 2일차

10월 22일

Volunteem 2022 개회사  
재능기부 자원봉사 프로그램들  
가을 음악회  
그룹별 캠프파이어 진행

### 3일차

10월 23일

행사 리뷰  
물품 회수 및 정리  
Volunteem 2022 마무리  
현장 자체 평가

## 볼런티움 2022 컨셉

### 온기우편함

온기우편함은 손편지로 일상의 위로를 전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익명으로 털어 놓을 수 있는 곳,

나의 고민을 익명 편지로 보내면 손편지로 답해 주는 곳이 온기우편함입니다.

### 청년기획팀

자원봉사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볼런티움 2022에 참가한 청년기획팀에게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청년기획팀과 볼런티움은 공동 기획자로서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버스킹 등 일부 프로그램에서

청년기획팀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캠퍼 및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캠퍼와 자원봉사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행사 진행시 주의해야 할 점과

1인 가구 청년에 대한 특강을 하였습니다.

볼런티움 2022는 캠퍼와 1인 가구 청년이

캠핑 문화를 즐기면서 일상에서의 자원봉사를 확산시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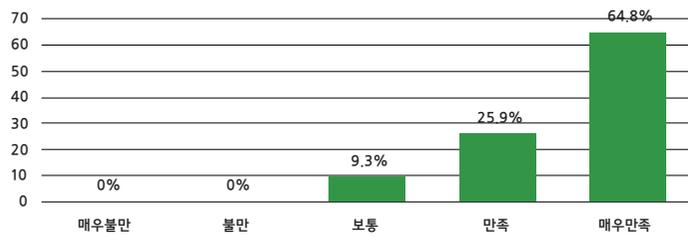
나아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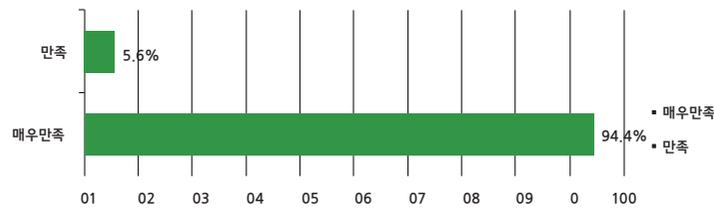
## 볼런티움 2022 참여자 평가

### 자원봉사 캠퍼

“ 이렇게 뜻깊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에게 캠핑이라는 좋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취지와 목적이 다음 회차에서 더 확고해지면  
 진정으로 캠핑을 하고 싶은 청년들과  
 봉사의 기쁨을 더 아는 캠퍼들이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차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스태프분들과 후원사들과 캠퍼들과 청년들이  
 점점 하나가 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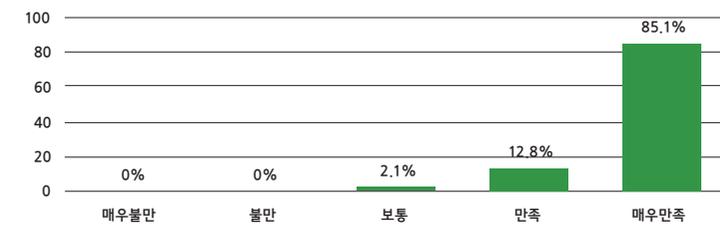
자원봉사 캠퍼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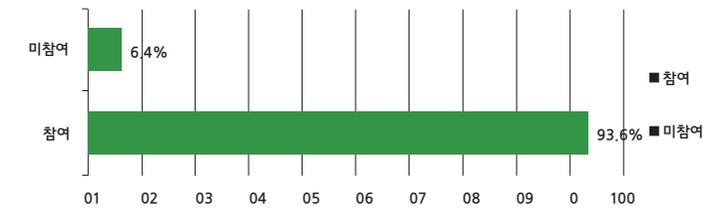
캠핑자원봉사 재참여 의사

### 볼런티움 2022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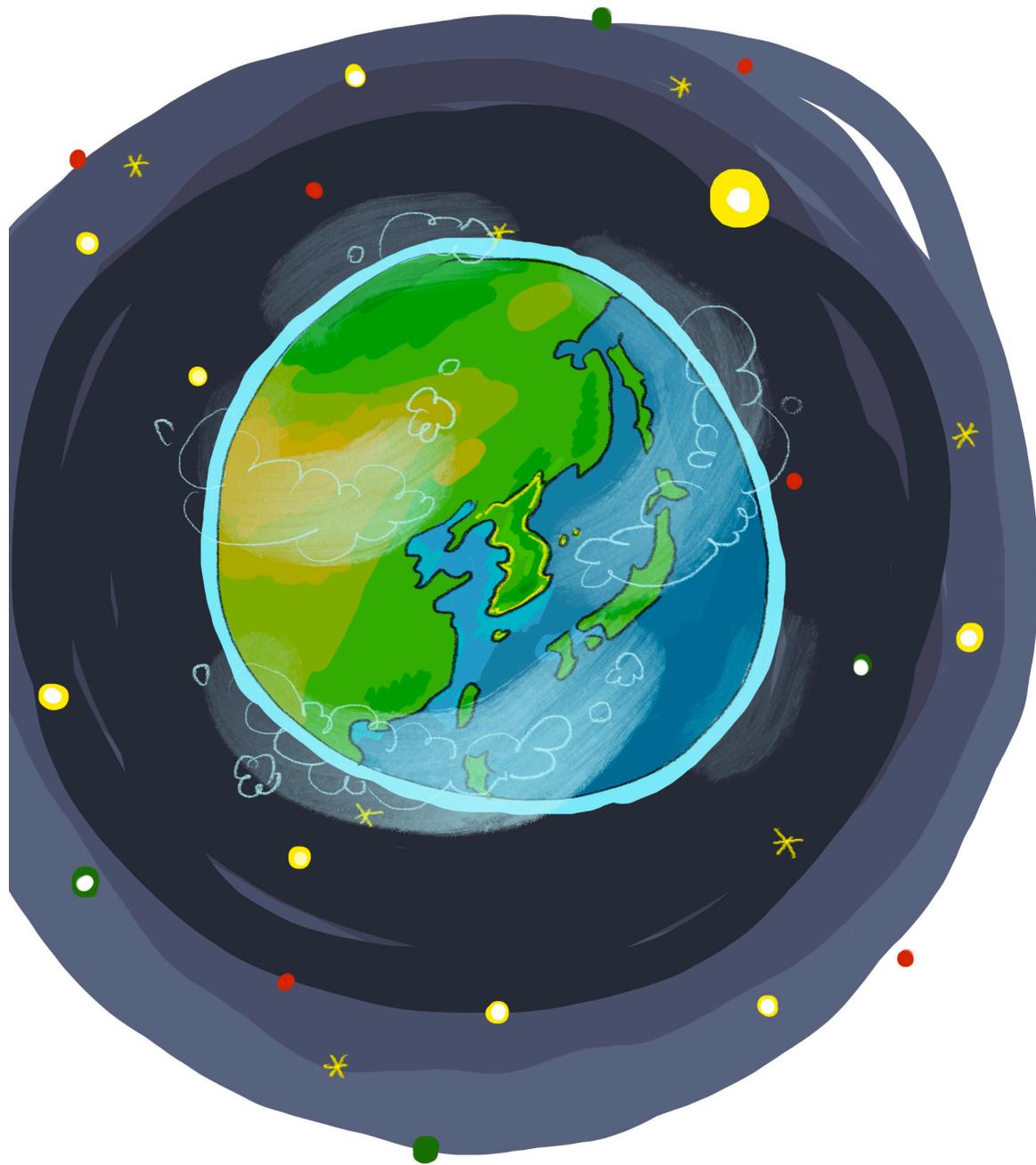
“ 처음 캠프인데 캠퍼분들께서 너무 잘 챙겨 주셔서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았고  
 캠핑의 묘미를 똑똑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캠핑 브랜드의 사장님들과 토크 시간도 가지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과 포부를 세울 수 있었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캠퍼로서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볼런티움 2022 대상자(청년) 만족도



캠퍼에 대한 만족도



## 볼런티움 2022 외부 평가

### IAVE Nichole Crillo 사무총장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 26회 IAVE\* 세계 자원봉사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니콜 사무총장은 각당복지재단의 라제건 이사장을 방문하여 Volunteem 2022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니콜 사무총장은 캠퍼들과 1인 가구 청년들을 매칭해 마음과 캠핑 경험을 나누는 새로운 자원봉사에 큰 흥미를 보였으며 '팬데믹 이후 크게 부각된 외로움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니콜 사무총장은 2023년에 캠핑대회가 열릴 때 다시 한국을 방문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라제건 이사장은 더욱 다양한 주제의 캠핑대회 프로그램을 만들고 Volunteem이 국제 세계로 뻗어 나가 2024년에는 미국에서 IAVE와 공동주관하는 자원봉사 캠핑대회를 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IAVE : 세계자원봉사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

후원 브랜드

JakeLah

EXPED  
EXPEDITION EQUIPMENT

Synkey



Helinox

DAC



PARKERS'  
INTERNATIONAL

후원 기업 및 참여 단체

- CJ나눔재단
- DAC
- EXPED
- Girl Scouts
- Helinox
- Hilleberg
- JKL Corporation
- Parker's Int.
- Synkey
- 수자원환경산업진흥
- 온기우편함

## 함께 살아가는 세상

저는 요즈음 인생의 두 번째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주변에 이야기합니다. 제 첫 번째 변곡점은 삼십 대 중반의 나이에 아무 경험도 없이 제조업을 하겠다고 뛰어든 일이었습니다. 역사학과 경영학을 전공했던 제가 1988년에 동아알루미늄을 창업한 것은 제조 업으로 세계 최고에 올라서 보고 싶은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일반 철의 두 배 가까운 강도를 가진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의 압출, 인발, 열처리 및 가공 등 정통 제조업의 길을 택하여 수 년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밤을 꼬박 새우며 365일 중 364일을 공장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삼십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지금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자원봉사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기세를 떨치던 2020년 6월 저는 한국자원봉사협회의 상임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한국자원봉사협회는 1994년에 출범한 우리나라 자원봉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단체입니다. 삼십여 년을 공장에만 붙어살던 제가 상임대표가 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만, 어머니께서 평생 자원봉사에 헌신하셨던 그 역할을 일부나마 아들이 이어가면 좋겠다는 회원단체들의 뜻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원 봉사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삼십여 년 전 알루미늄을 붙들고 씨름하던 것처럼, 자원봉사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원봉사 정신이 우리 사회에 바탕으로 깔리다 보면 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원봉사 정신을 확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던 일들이 마치 마술처럼 서로 연결되어가는 것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 영리와 비영리의 결합

저는 영리의 세계에서 살아왔습니다. 제 어머니는 비영리의 세계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제게는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각당복지재단에 오랜 시간 동안 재정지원을 해 오던 것이 저희 회사와 재단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각당복지재단 이사장을 겸하다 보니 기업의 재정지원을 받는 입장에 서게 되어버렸습니다. 막상 받는 입장이 되어보니 영리와 비영리는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 인도어와 아웃도어의 융합

삭막한 잿빛 인천 공단에 공장을 짓고 꽃과 나무 등 자연의 일부나마 직원들의 생활공간으로 끌어들이려 애썼습니다. 다양한 텐트 개발에 이어 초경량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경량 야전침대의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자연에서는 바닥에 돛자리를 깔고 앉아 지낼 수밖에 없던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연에서 입식 생활을 좋아하는 것을 확인한 저에게 대형텐트의 개발은 자연스러운 다음 목표가 되었습니다. 대형텐트의 개발은 실내에서만 가능하던 활동들을 실외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답답한 주거환경이 아웃도어 스타일을 실내로 끌어들이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심의 발전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향수를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 자원봉사와 캠핑과의 결합

자원봉사는 제 어머니인 김옥라 박사께서 1951년 부산 피난 시절 걸스카우트 운동을 시작하며 접하기 시작하신 활동입니다. 캠핑은 제가 지난 삼십여 년 동안 텐트를 포함한 다양한 아웃도어 가구들을 개발해온 분야입니다. 작년 봄 남이섬에서 캠퍼들에게 ‘자원봉사 해보지 않을까요?’ 라고 던졌던 질문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시작된 것이 Volunteem 2022입니다. 5백 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 감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험적인 단발성 프로젝트였지만, 모두 정말 좋아해서 앞으로 당연히 매년 이어지리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캠핑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말씀드리신 분들마다 자연에서 함께하는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데 대해서도 너무들 좋아하십니다. 함께 텐트를 치고, 음식을 나누며, 저녁에 불멍을 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뜰 수도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불런티움의 바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때때로 던져보아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오랜 시간을 고민하다가 찾아낸 저의 해답은 싱겁게도 바로 저 자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가져다주는 3대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사랑, 인정, 소속감은 모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원봉사가 바로 사랑과 인정과 소속감을 줄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은 제게는 희열이었습니다. 자원봉사는 사람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기여, 그리고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경험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 보입니다. 제 어머니의 평생의 소명인 자원봉사가 저희 부부의 소명이 되어 제 삶의 두 번째 변곡점을 만들어주게 된 까닭입니다.

VOLUNTEEM

라 제 건 드림





